

2016학년도 제 1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6년 4월 25일(월) 16시

2. 장 소 : 본관3층 제1회의실

3. 참석자 : (의장) 김원기

(의원) 김광희, 남상빈, 박덕화, 송수황, 유현주, 윤용택, 이재현, 최승준
(간사) 홍창의 기획예산과장
(참관) 정현석 재무과장

4. 불참자 : (의원) 노정기, 김종환

5. 안건 및 결의내용

- 1) 전차회의록 상정 - 원안 가결
- 2) 2015회계연도 학교비회계 자금계산서 자문 - 원안가결
(2015회계연도 추경예산안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포함)

6. 회의순서 및 내용

의 장 : 총원 11명 중 9명 참석,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

의 장 :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을 상정.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함

의 장 :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와 재청을 요청

김광희 : 동의함

이재현 : 재청함

의 장 :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“예” 하시기 바랍니다.

전 체 : “예”

의 장 : 첫 번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

의 장 :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함.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요청

간사(기획예산과장) :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별도 배부된 자료를 설명드리고자 함. 지난 평의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추경과 2016회계연도 본예산안을 함께 심의할 때 이후 수정내용이 생길 경우 법인이사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된 바 있음. 이에 수정내용이 있어 보고하고자 함

간서명

간 사 :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학교법인삼일학원으로 법인전입금 33,579,000원을 학교비회계로 더 넣으라는 통보에 따라 법인전입금이 더 들어왔음. 전체 총액은 동일하지만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숫자가 변동되어 기금에서 인출하려던 장학기금은 인출하지 않고 계수 조정이 되었음

김광희 : 법인전입금을 더 넣으라고 한 이유가 20%를 맞추려는 것인가?

간 사 : 20%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계 내용이 사학진흥재단에 보고되면 사학진흥재단에서 내용을 검토하고, 법인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 지시를 받아 통보를 내리고 있음

의 장 :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. 보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함

기획처장 : 본 변동내역은 결산서에 반영되었음

의 장 : 의견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추경 예산(안) 변경사항 보고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

박덕화 : 동의함

이재현 : 재청함

의 장 :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“예” 하시기 바랍니다.

전 체 : “예”

의 장 : 보고에 대한 내용이 원안가결되었음(2015회계연도 추경 예산(안) 변경사항)

의 장 :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설명을 요청

재무과장(정현석) :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설명함

의 장 :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함

이재현 : 인건비가 약 3억이 남았는데 자연적으로 남은것인지? 추경이후 남은것인지?

간 사 : 인건비는 매년 여유있게 편성하므로 남는 현상이 좀 있고, 올해 급여 3%인 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출되지 않은 이유도 있음. 전체적으로 약 56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약 50억이 산림청부지 매입에 해당되는 금액임

김광희 : 인건비 비율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는지?

간 사 : 비율이 줄지는 않았음. 인건비를 잡을 때 등록금수입 기준인가? 전체수입 기준인가?로 구분할 수 있는데 등록금수입 기준일 경우 60%가 넘어감

유현주 : 비율은 어떤 기준인가?

재무과장 : 지출총액의 수입총액 대비 비율임

유현주 :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?

기획처장 : 산림청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던 부분인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음

간서명			
-----	--	--	--

윤용택 : 등록금수입의 증가 이유는?

기획처장 : 학생들의 복학, 정원외 인원의 변동(계약학과 등) 등이 사유임

윤용택 : 정원 외 학생모집이 가능한가?

기획처장 : 복학의 경우 이미 확보된 인원이므로 문제가 없고, 정원외 모집인 계약학과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모집되어 등록금 수입의 증가가 발생하였음

간사 : 12월에 추경을 잡기 때문에 어느정도 맞아야 하지만 미등록학생 중 제적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경우 예산과에서는 수입을 적게 잡게 됨.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고 나중에 모자를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므로 확실한 수입만 편성하고 있음

남상빈 : 산림청부지 매입은 안 되었나?

기획처장 : 현재 논의중임

남상빈 : 들어온 법인전입금 약 3,300만원을 장학금 부분에 늘려서 교육비환원율 지표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는 없었는지?

간사 : 법인전입금 용도는 교직원 연금불입등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, 장학기금을 빼지 않고 수입을 늘렸을 경우 총액 전체가 변동이 생겨버려게 되는데 이미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상태이므로 총액변동을 하지 않고 조정하게 되었음

유현주 : 결과적으로 장학금액은 어떻게 집행처리되었는가?

간사 : 학부의 경우 지출키로 하였던 장학금액은 모두 지출하였으며 다만 대학원은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편성으로 인해 장학금이 남았음. 장학기금 인출을 줄였다고 해서 지출이 준 것이 아니며, 다른 계정에서 조정하였음

윤용택 : 연구학생경비 7억정도가 남았는데 장학금이 덜 집행된 것이 아닌가?

간사 : 국가장학금이 덜 들어와 지출이 덜 된 것도 있고, 대학원 장학금 과다편성으로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음

윤용택 : 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인가?

기획처장 :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생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상황이 바뀌므로 이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으며, II유형은 학교에서 대응지급하는 부분임.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음

윤용택 : 국비는 예산외로 편성하나?

기획처장 : 예산에 편성하며 목적사업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금액임

윤용택 :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관리운영의 차원에서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음

간서명			
-----	--	--	--

의장 :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에 대해 설명을 요청

재무과장 : 내역을 설명함

의장 : 임의퇴직기금은 매년 발생하는가?

재무과장 : 매년 발생하게 되는데 조교퇴직금과 사학연금 미가입자 교직원의 퇴직기금이 여기에 해당되어 발생하게 되는 금액임

남상빈 :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부분이 예산에 비해 많이 오버되었음

재무과장 : 이자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음

박덕화 : 관별 집계표를 보면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임

재무과장 : 향후 잘 정리하도록 하겠음

의장 : 추가질문이 없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 번째 안건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

김광희 : 동의함

박덕화 : 재청함

의장 :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“예” 하시기 바랍니다.

전체 : “예”

의장 : 두 번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함

남상빈 : 기타안건을 요청

의장 : 기타안건을 듣기로 함

남상빈 :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타안건을 요청하였음. 본인은 현재 총학생회장이면서 경대협(경기도대학생협의회) 부의장을 맡고 있음. 이 자리에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각 대학에서 모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음. D등급 대학의 경우 국가의 요구사항 뿐 아니라 자구책을 많이 펼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학금과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는 등 학교 생존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음. D등급 대학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대학이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함께 경각심을 세워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음

의장 : 기타안건으로 남상빈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잘 들었고, 이 부분은 내용이 방대하고 다룰 내용이 많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안건상정되거나 거론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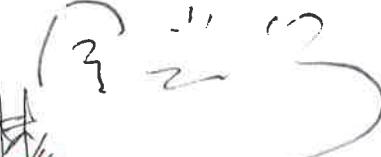
의장 : 다른 기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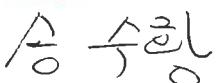
(폐회 16: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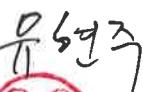


7. 참석자 확인

의 장 : 김 원 기



남상빈


송수황 

유현주 

윤용택 

이재현

최승준 